

한국 내 周作人 연구

千大珍*

〈목 차〉

1. 들어가며
2. 周作人の 文學觀
 - 1) 휴머니즘
 - 2) 전통문학觀 : ‘載道’와 ‘言志’
 - 3) 변모된 개인주의
3. 小品文
 - 1) 1930년대 소품문 운동과 논쟁
 - 2) 周作人の 소품문과 그 변천
4. 고쳐하는 지식인
5. 나오며

1. 들어가며

周作人は 5.4시기 신문화 운동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고 현대를 향한 중국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탐색하고 실천한 인물이다. 그리고 친일부역으로 ‘漢奸’이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는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극명한 쟁점에 놓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친일부역의 본질을 놓고서 여러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기도 하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그간 주작인의 문학과 역사적 쟁점에 대해 혼재하고 있는 국내의 여러 연구와 평가에 대한 객관적 고찰을 시도하여 향후 周作人 연구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자들은 과연 周作人の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중국 문헌에서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논문과 학술자료¹⁾들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의 周作人 열풍

* 경상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wangcang@hanmail.net)

1) 周作人和 관련하여 CAJ에서 검색 가능한 자료로는, 中國學術期刊에 나온 관

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의 사정은 이와 달라서 周作人의 친형인 魯迅이나 郭沫若과 같은 인물과의 대비로 볼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의 낙인이 주는 상징성 때문인지 국내 학계에서도 周作人 연구에 대해 보다 소극적이나,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후인들은 단순한 역사의 이해관계만으로 周作人을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조명하려고 시도하는 일부 학자들의 노력은 역사를 올바르게 재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각의 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본고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 周作人에 대한 연구’이기에 중국 자료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각종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과연 한국 학계에서는 周作人의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또 중국 학계와는 달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周作人의 새로운 면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보다 큰 의의로 여기며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내의 周作人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제 목
學位論文	金炫廷	中國現代兒童文學 形成過程 研究 : 양계초 魯迅 周作人을 중심으로
	李知岡	周作人의 문학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張文湖	周作人 後期散文의 風格
	高韻璇	周作人 散文에 나타난 문학 담론 연구 : 5·4 新文學 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李政勳	五·四時期 周作人 文學理論 研究
	尹賢兒	明清文獻 笑話 研究 : 周作人 編 《明清笑話四種》을 중심으로
	金美廷	周作人 研究
	申明圭	周作人 研究
	李政勳	周作人의 ‘五四’時期 文學論 研究
	許恩愛	周作人의 1920年代 散文 研究

런 논문이 대략 1830여 편이 있고, 학위논문으로는 11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이 수치 중에는 周作人에만 초점을 맞춘 논문도 있지만, 周作人和 魯迅과의 관계, 周作人和 현대문학, 周作人和 현대산문(소품문)과 관련된 것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盧昇淑	1927·28年周作人雜文研究
	趙恒瑾	周作人論
	金壽貞	周作人の 抒情散文 研究：《雨天的書》와 《澤瀉集》을 중심으로
國內 學術紙 論文	金美廷	周作人和 日本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北京이란 문화공간：周作人の 경우를 중심으로
	金美廷	周作人の 전통문학관：‘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洪峻熒	1930년대 周作人の 문체 선택과 그 動因
	洪峻熒	周作人和北京
	崔成卿	周作人の ‘人의文學’에 관한 考察
	白永吉	5·4 시기 周作人の 基督教 批評談論
	周作人著 沈泓植譯	唱辭
	金秀姬	周作人の 〈小河〉 鑑賞
	申洪哲	5·4 초기 周作人の 현실인식과 문예사상
	高韻璇	新文學運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1918-1927년 周作人の 산문을 중심으로
	金美廷	현대를 향하여：周作人の 五四관
	洪允姬	周作人の 민속학 연구와 ‘신화’
	劉玉珂	周作人與中國現代文學
	高韻璇	性 담론의 수용과 周作人の 審美觀
	小川利康 高韻璇譯	5·4시기 周作人の 문학관(번역 및 자료)
	李台薰	周作人の 초기산문 연구
	李鎔泰	외래사상과 周作人の 수용 연구
	高韻璇	周作人の ‘重來’ 비판의식에 관하여
	趙璟姬	周作人の 文藝觀研究 (1918-1928)
	金美廷	周作人·林語堂의 審美觀과 1930년대의 小品文운동
	金美廷	중국현대산문을 통해 본 중국현대 정신사의 한 측면：周作人에서 賈平凹로
	金美廷	周作人の 산문세계：소품문의 문체구성을 중심으로
	申明圭	周作人の 휴머니즘
	洪峻熒	산문 전통과 1930년대 학자산문
	李濟雨	1930년대 ‘小品文論爭’을 통해서 본 晚明小品의 인식과 평가
	洪峻熒	중국 현대 산문의 기록성과 근대성
單行本	周作人著 方哲桓譯	연애 편지 쓰는 법
	金喆洙	中國新文學講話

	韓國中國 現代文學 學會	중국현대작가의 이해
공개저널	李魯夫	周作人論

위의 표2와 같이 현재까지 周作人에 대해 연구된 학위논문은 모두 13편으로 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 석사학위 논문 10편이 있다. 그리고 각종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총 28편이 있고, 공개저널에 실린 글이 1편, 단행본으로는 3권의 책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일부 현대작가와 작품들은 동시대의 한국 현대작가나 작품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에 대해 언급한 글들이 다수 보이나 周作人과 그의 문학작품과 관련된 비교문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동시대를 살았던 한국 현대작가들도 현대산문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단순한 가설에서 출발하였던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접근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본고에서는 모두 세 가지의 주제—周作人の 文藝觀, 小品文, 인물에 대한 탐구—에 대해 관련 글들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주작인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周作人の 文藝觀

1) 휴머니즘

1918년 〈人的文學〉을 발표하면서 5·4신문화운동의 주역이었던 周作人은 신문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여 당시 문학가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다. 이후 〈平民文學〉·〈思想革命〉·〈新文學的要求〉·〈聖書與中國文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휴머니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들은 신문화운동의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틀의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5·4시기 이전과 5·4시기로 나

2) 이 자료는 RISS(韓國學術研究情報서비스)와 國會圖書館, 金惠俊의 〈한글판 중국현대문학 작품 목록(2010, 2)〉·〈한국의 중국현대문학 학위논문 및 이론서 목록(2010, 1)〉에 수록되어 있는 周作人과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및 단행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중 작가의 작품만을 번역·수록한 일부 전집과 단행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① 5·4시기 이전의 문학회론 형성의 배경

1885년 浙江省 紹興附 會稽縣에서 출생한 周作人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四書五經》·《詩經》·《論語》와 각종 明·清代소설을 탐독하면서 많은 문학적 자극을 받았으며, 인간적이고 대중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가 존경한 사상가들로는 王充(27~100)·李卓吾(1527~1602)·俞正燮(1775~1840)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정직한 성격에 그들 시대의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악습을 비난하는 용기를 지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력히 외친 인물들이다.³⁾ 17세가 되던 해에 江南水師學堂에서 修學하는 동안 그는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접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문학에 관한 흥미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간 周作人은 유학생생활 동안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본격적 문학수업을 시작하고, 전통적 문학회론과는 다른 새로운 서구의 문학회론을 받아들였다. 이때 발표한 논문이 바로 〈論文章之意義暨其使命因及中國近時論文之失〉과 〈哀弦篇〉이다. 이 두 편의 논문은 당시 周作人이 점차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눈뜨게 되면서 ‘시대의 선각자’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문학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문학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논하는 한편 중국의 문학회론을 비판하고 있다. 李政勳(1994)은 〈論文章之意義暨其使命因及中國近時論文之失〉와 〈哀弦篇〉에 나타난 周作人의 문학회론을 1)문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 2)전통적 문학회론에 대한 비판, 3)5·4시기 문학회론과의 관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또한 周作人의 문학회론이 비록 체계적 형태로 재구성되어 동시대의 문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5·4시기의 본격적으로 전개된 그의 인도주의와 사실주의를 강조하는 문학적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② 5·4시기 문학회론의 근간－휴머니즘

周作人의 5·4시기 문학회론을 ‘理想主義’라고 말하는 이⁵⁾가 있다. 주작

3) 申明圭, 〈周作人의 휴머니즘〉, 《中國語文學》, 12(1986), 174~175쪽 참조.

4) 李政勳, 〈五四時期 周作人 文學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9쪽 참조.

5) 小川利康 著, 高韻璇 譯, 〈5·4시기 周作人의 문학회론 : W.블레이크, L.톨스토

인에게 있어서는 문학이야말로 사상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믿었던 시기였기에 理想은 그의 문학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는 周作人이 꿈꾸었던 세상과 그 세상을 변화시킬 문학의 역할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5·4시기의 周作人의 문학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周作人의 인간관’이고 둘째가 ‘계몽이성’이다.

周作人의 인간관은 다시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人道主義이고, 둘째는 靈과 肉의 조화로운 발전, 셋째는 개인과 인류의 관계이다.⁶⁾ 여기서 말하는 인도주의에 대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유럽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周作人이 부르짖은 인도주의는 이와 다소 다른 차이가 있음을 趙璟姬(199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周作人의 인도주의와 유럽의 인도주의는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周作人이 이 글에서 주시하고 있는 인간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계급에 속한 인간이 아닌 전체 인간, 인성을 지닌 인간전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차이점은 周作人이 이 글에서 ‘여성’과 ‘아동’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周作人도 이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럽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발전이 뒤늦게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던 것이다. (인용자 중략)… 자아의 확립을 주된 과제로 하는 일본의 白樺派의 인도주의보다도 더 진일보한 과제로서 여성과 아동의 인격 독립의 문제를 周作人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周作人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이러한 사고 방법이 관념적인 것에 그쳤지만, 당시 유럽과 일본의 인도주의와는 차이가 있었고, 오히려 진일보한 인식 속에는 이러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靈과 肉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周作人의 〈人的文學〉에서 말하는 靈肉一致의 인간관은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이라는 ‘진화론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세까지의 神本主義의 가치관으로부터

이의 수용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19(2006), 257쪽.

6) 趙璟姬, 〈周作人의 文藝觀研究(1918~1928)〉, 《中國語文論叢》, 7(1994), 333~337쪽 참조.

인간에 내재된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육체적 욕망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⁷⁾ 또한 周作人은 〈聖書與中國文學〉에서 자신의 인도주의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 白永吉(200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면에서 周作人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性심리에 관한 분석을 축으로 하여, 그리스의 철학과 헤브루 사상의 접점을 발견하고자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인간의 문학 개념과 기독교의 종교적 본질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고도 보인다. …(인용자 중략)… 周作人은 바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관점, 다시 말하면 결국 스스로의 ‘개인주의적 인간본위주의’로서의 인도주의의 구현 양태의 정당성을 기독교의 성서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고 있다.⁸⁾

또한 白永吉은 여기에서 실제 기독교와 周作人의 기독교관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周作人은 인간의 한계와 죄악에 대한 신으로부터의 구원,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성립의 핵심사항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는 그의 기독교 비평 속에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에 의한 종교적 본질의 변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개인과 인류의 관계이다. 혹자는 이를 ‘인간과 인간의 습一’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周作人은 人道主義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는 人道를 논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가 인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인간의 위치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남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인도주의여야 하며, 인간의 이상적인 생활은 인류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즉 개인이 인류의 하나라는 자격으로, 예술적 방법으로 개인의 감정

7) 白永吉, 〈5·4시기 周作人의 基督教 批評談論〉, 《中國語文論叢》, 42(2009), 328쪽.

8) 위의 논문, 329~331쪽.

을 표현하면 바로 인류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⁹⁾

周作人の 5·4시기 문학관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바로 ‘5·4啓蒙理性’이다. 5·4사상 계몽운동의 근원은 서구의 근대에 대한 중국의 봉건적 낙후성을 절감하고, 위기에 빠진 중국민족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몽과 구국은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민족을 구하려는 혁명적 긴박함은 계몽에 대한 요구를 가려버리고, 초기 계몽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식인들 스스로 民族救亡이라는 집단적 목표에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입으로 비판하였던 국가·사회·민족 등의 우상이 혁명의 권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¹⁰⁾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비판적이었던 周作人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성’은 어떠한 상황 논리나 혁명 논리에도 앞서는 변화할 수 없는 확고한 인간성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周作人の 이러한 계몽정신의 근간에 대해 金美廷(1999)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시기 그는 역시 맹렬한 반봉건 계몽운동의 맹장이었다. 그는 시종 일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수호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인간의 자연인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갖가지 舊예교, 위선적 도학자,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켜 ‘전제적 광신’에 이르게 하는 샤머니즘적 도교사상을 즐기치게 비판했고, 무력과 폭력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세력(그것이 군벌정부건 국민당이건 상관없이)에도 전투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5·4계몽정신, 아직 중국에 뿌리내리지 못한 현대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¹¹⁾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周作人は 5·4계몽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지식인의 냉철한 이성과 자유, 개성존중의 태도를 강조하였으나, 이후 계몽이성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버린다. 그는 중국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개인주의자로 변화하게 된다.

李政勳 또한 周作人이 당시에 가졌던 문학이론의 차별성을 ‘근대성’으

9) 주 6)의 논문, 336쪽 참조.

10) 金美廷, 〈현대를 향하여 : 周作人の 五四觀〉, 《中國現代文學》, 16(1999), 213쪽 참조.

11) 위의 논문, 214~215쪽.

로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周作人이 당시의 다른 문학 혁명론자와 구분되는 점은 문학의 계몽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문학이 과연 어떤 독자적 존립근거를 갖고 있는가하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은 문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학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이를 다르게 '문학의 근대적 존재방식'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와 같이 周作人의 문학이론을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은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근대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周作人의 문학관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편의 논문이 있다. 崔成卿(2003)은 周作人의 5·4시기 대표 논문인 〈人的文學〉만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면서 “周作人의 ‘人的文學’은 인간본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며, 인간성 회복과 자아표현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예관이다.”¹³⁾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李知岡(2002)은 周作人의 문학관 저변에 흐르고 있는 페미니즘에 주목했다. 周作人은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해방과 性的 해방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李知岡은 “여성문제를 단순히 봉건윤리에 반대하는 범주가 아닌 여성의 권익보호를 제창하는 여권사상으로 발전시켜 현대 중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周作人이 선구적 역할을 한 것”¹⁴⁾으로 평가하고 있다.

5·4시기를 거쳐 변모된 개인주의로 접어들기 전까지의 周作人의 문학관을 필자는 '휴머니즘'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5·4시기는 중국 지식인들이 인간의 발견과 해방이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보편적으로 각성하는

12) 주 4)의 논문, 62쪽.

13) 崔成卿, 〈周作人의 ‘人的文學’에 관한 考察〉, 《中國語文論叢》, 24(2003), 392쪽.

14) 李知岡, 〈周作人의 문학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2), 62쪽.

시기였다.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과 생명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인간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서 근대적 인간관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상적인 이론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휴머니즘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었기에 당시 중국사회가 안고 있던 내재적 요소와 결합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혹자들은 그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원칙들을 추상적 휴머니즘의 틀 안에서 한정되는 지식인의 이상’ 혹은 ‘이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周作人 자신 또한 현실과 호홉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閉戶讀書’이다.

2) 전통문학관 : ‘載道’와 ‘言志’

周作人は 5·4시기에 중국의 전통 봉건제도와 봉건적 사유구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지식인이었다. 이는 동시대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공통된 경향이었는데, 그들이 지향해야 할 노선은 ‘전통의 부정과 서양 문학의 학습’을 제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학운동의 대오가 분산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復古의 경향을 보이고, 신문학운동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일게 된다. 즉 그들의 관심이 ‘일방적인 전통의 폐기’에서 ‘전통의 재조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周作人も 한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다.

1932년 周作人は 輔仁대학에서의 신문학 강연을 하면서 정리하게 된 《中國新文學の源流》¹⁵⁾을 발표하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국문학사의 뿌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문학이란 ‘단지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 표출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중국문학의 변천을 ‘言志’와 ‘載道’라는 두 조류의 기복으로 설명하고 있다. ‘言志’란 ‘시는 뜻을 말한다.(言志派)¹⁶⁾’는 것으로 자신의 진솔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문학에 있어서 그것을 구속할 통제력이 없어서 누구나가 모두 자유로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과의 사상이 모두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춘

15) 이 책은 한국에서 《中國新文學講話》라는 제목으로 金喆洙에 의해 1970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16) 《書經·舜典》에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라고 한 데에 근거하였다.

추전국시대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문학사에서 魏晉六朝·五代·元·明末·民國에 이르는 言志派의 흐름은 역사의 순환 속에서 그 맥을 이어 왔음을 역설한다. ‘載道’의 문학이란 宋代 周敦頤의 “문장은 도를 신는 것이다.(載道派)¹⁷⁾”는 것으로 문학이 단지 뜻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문학을 도구로 삼고, 다시 이 도구를 빌어 더 중요한 道를 표현하는 문학을 말한다. 즉 정국이 안정되고 사상이 문학을 통치하게 되면 문학도 載道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兩漢·唐·兩宋·明·淸에 이르는 문학이 대체로 그러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대 관조 속에서 周作人은 명말 ‘公安派’와 ‘竟陵派’의 문학 정신에 주목하게 된다. 공안파의 대표인물로는 ‘三袁’인 ‘袁宗道·袁宏道·袁中道’가 있는데, 이들은 明代에 성행한 복고의 기풍에 반기를 든 인물들이다. 그들의 기치는 간단명료하다. ‘獨抒性靈 不拘格套’, 즉 ‘오직 天然의 性靈만을 써내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信腕信口 皆成律度’, 즉 ‘팔에 맡기고 입에 맡겨도 그것이 모두 율도에 맞는다.’는 것이다. 周作人은 이들의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한다.

현대의 胡適 선생의 주장 가운데에서 그가 받은 바의 과학·철학·문학 내지 사상 등 각 방면의 서양의 영향을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公安派의 사상과 주장입니다. 더구나 중국문학의 변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현대에서 문학을 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어찌면 더 한층 투철한 것일 것입니다. 이론이든 문장이든 모두가 매우 바르고 훌륭했으나 그들은 운이 나빠 청조에 이르러 그 저작들은 모두 금서가 되었고 그들의 운동도 乾隆·嘉慶의 학자들에게 타도되어 버렸습니다.¹⁸⁾

周作人은 ‘言志派’로 대표되는 공안파의 문학정신을 통하여 新과 舊, 전통과 현대라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통해서 중국 신문학운동의 정통성을 바로 전통문학 속에서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휴머니즘 문학관을 체계화하는 계통성을 얻은 셈이었다. 실제로 그는

17) 周敦頤의 《通書》: 〈文辭 第二十八〉에 “文所以載道也。”라고 한 데에 근거하였다.

18) 周作人 著 金喆洙 譯, 《中國新文學講話》, (서울: 乙酉文化社, 1970), 44~45쪽.

〈人的文學〉과 〈平民的文學〉, ‘言志派의 문학’은 휴머니즘 문학이고, ‘非人的 문학’과 ‘귀족문학’, ‘載道派의 문학’은 비인간적인 문학이라고 말한다. 즉 “周作人的 휴머니즘 문학관은 〈人的文學〉, 〈平民的文學〉, ‘言志派의 문학’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이 모두 개인적 인간본위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⁹⁾

周作人的 ‘載道’와 ‘言志’에 관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모두 2편의 논문과 1권의 단행본이 현재 한국에 소개되어 있다. 그 중 申明圭(1986)의 〈周作人的 휴머니즘〉은 周作人的 휴머니즘의 근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에 주목하였다. 金美廷(1994)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周作人的 전통문학관만을 주제로 한 논문을 썼고, 周作人的 전통문학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周作人이 ‘載道’와 ‘言志’의 관념으로써 중국문학사를 개괄한 것은 중국문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 새로운 분석틀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言志’의 문학이라는 중국 현대 신문학의 성격규정을 위하여 그 합리성을 역사적으로 보장받고자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관심이 신문학과 전통문학 사이의 모종의 연계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암암리에 ‘言志’문학의 정당성을 피력하려 한 것이었기에 스스로 많은 문제점을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학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칠게 단순화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²⁰⁾

金美廷은 또한 이러한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에 4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문학은 功利性和 審美性, 有목적성과 無목적성을 동시에 지니는 반면, 周作人的 문학은 無목적적인 審美性만을 강조한다. 둘째, ‘載道’와 ‘言志’는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아니며 개인의 처지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창작태도이다. 이어 公安派의 대표적인 袁宏道도 ‘載道’의 문장과 ‘言志’의 문장을 상황에 따라 혼용하였음을 근거로 든다. 셋째, 현대 신문학의 뿌리는 明末의 신문학운동의 혁명적 특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나, 周作人이 載道派 문인으로 보는 韓愈·歐陽

19) 주 3)의 논문, 184~185쪽.

20) 金美廷, 〈周作人的 전통문학관 :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 22(1994), 319쪽.

脩도 尊命적이지 않은 혁명적인 면모가 있었다. 넷째, 중국문학은 역사적 순환성에 의해 반복 속에 있고 현대 신문학운동은 그 흐름의 일단락이라고 보지만 역사적 지향점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순환론의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金美廷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異見은 있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周作人의 문학이 審美性만을 강조한 無목적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문학의 효용성을 두고 어느 一端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었다는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중국문학사의 새로운 흐름을 통찰해내고자 했던 周作人의 논지는 분명 一端의 의견일 수는 있다. 文과 道를 연계시키는 문학이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지나치게 道에 무게가 실려서 편중된 문학의 시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周作人은 그의 탁견으로 문학의 속성을 읽어냄으로써 ‘言志’의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역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근대적 가치에 대해 再考하게 했다는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와 셋째에 대한 관점은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중국문학사를 어느 누가 단 몇 장의 글로써 전체 내용을 다 기술할 수 있겠는가? 周作人의 시각은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문학사를 고찰하고자 한 과정에서, 지엽적이고 세세한 현상까지 세세하게 다 논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강의를 엮은 《中國新文學的原流》에는 이에 대한 세밀한 설명과 논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金美廷의 논지는 문학을 지나치게 작의적으로 도식화하는 문제점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周作人의 입장으로 반증할 만한 더 이상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단발로 그친 그의 전통문학에 대한 주장은 더 이상 공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周作人에게 있어서 전통문학관은 5·4시기를 거치고 새로운 현대문학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합리성을 역사적으로 보장받으려 했던 것임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한국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문학의 뿌리를 전통에서 찾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

21) 주20)의 논문, 315~318쪽 참조.

을 열어가고자 했던 한 지식인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고, 또 현재로부터 미래를 열어갔던 중국 지식인의 ‘溫故知新’의 정신에 필자는 적지 않은 부러움을 느낀다.

3) 변모된 개인주의

1921년 초부터 그해 9월까지 周作人은 병고에 시달린다. 그는 西山碧雲寺에서 요양을 하며 5·4시기의 활동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5·4 신문학운동 대오의 분열과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에 의해 사상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직접적인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면, 자신의 와병, 문화혁명운동을 추진해온 동료들과의 사상적 균열, 친형인 魯迅과의 불화 등으로 볼 수 있다.

5·4운동의 퇴조기에 周作人은 5·4운동을 함께 했던 지식인들과의 정신적 유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출로를 찾아야 했으며, 좌익작가들과는 다른 자유주의적 지식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유주의적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周作人和 좌익작가군은 각자의 길이 달랐고, 때로는 서로간의 첨예한 사상 대립양상까지 전개되었다. 게다가 형제인 魯迅과의 불화는 周作人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형제는 서로에게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지자였고 혁명의 동지였으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周作人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변모하게 된다. 周作人은 수많은 현실적 대립 속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결국 周作人은 〈元旦試筆〉에서 스스로 범인류주의를 포기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5·4시기에 나는 세계주의를 꿈꾸며 온갖 비현실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사상의 반동이 과격하던 아니면 유희적이던, 내 자신은 다시 사람들에게 의하여 더 이상 세계주의자로 불리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뿐이다.²²⁾

22) 周作人著, 中國現代文學官編著, 《雨天的書》·〈元旦試筆〉, (華夏出版社, 2008): 五四時期我正夢想着世界主義 …… 我只表明我思想之反動, 無論過激過頑都好, 只愿人家不要再恭維我是世界主義的人就好了。

周作人は 1927년 4·1정변 이후 혁명의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국민당 정부의 테러와 공포정치에 급격히 위축되었고, 사회적인 불만을 삭히며 체념하였다. 그리고 1928년 〈閉戸讀書論〉을 발표하고, 시대와는 동떨어진 隱士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 시기의 周作인에 대해 金美廷(1995)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周作人が 소리 높여 외친 ‘개인의 존엄’과 ‘개성해방의 당위’는 반봉건적 사상 계몽운동의 역사에서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봉건적 諸관계가 철저히 청산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봉건적 정신구조의 특징인 전체적 광신이 좌익운동 내부의 일정한 요소와 쉽사리 결합하여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할 수 있는 요소로 자라날 것을 예측하는 그의 안목은 결코 좁고 단기적인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이후 점점 소극적인 측면들을 내보이고 있고, 급기야 “苟全性命於亂世²³⁾”라는 保身적 개인주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만, 그의 5·4시기를 관통하는 개인주의적 인도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²⁴⁾

周作人は 1928년 〈閉戸讀書論〉 발표 이후 소품문 창작에 몰두하며 1930년대에 성행한 소품문 운동을 주도하였다. 비록 각자가 가는 길은 달랐지만 魯迅과 함께 현대산문의 一派를 이루며 새로운 문예창작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고뇌하며 노력하였는지 1930년대 소품문 운동으로 넘어가 보자.

3. 小品文

중국 현대산문의 대명사가 된 ‘小品文’에 대한 논문은 周作人 관련 내용에서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합치면 모두 11편 논문이 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종합해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920년대의 산문연구, 2) 1930년대의 소품문운동, 3) 周作人の 소품관과 그 문체의 특징, 4) 기타 晚明소품과의 관계이다.

23) 인용자 注: “난세에 목숨을 부지한다.”

24) 金美廷, 〈周作人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0쪽.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구는 2)와 3)으로서 1930년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소품문운동을 통해서 중국 현대산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당시 周作人의 소품문과 그 문체의 특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周作人이 독자적으로 걸어왔던 중국산문의 새로운 풍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1) 1930년대 소품문운동과 논쟁

1930년대는 중국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소품문의 황금시대’라 불렸던 시기다. ‘소품문’이 중국의 전 문단을 풍미하고 있었을 때, 周作人は 그야말로 각종 논쟁의 정점에 있었다. 그 내용은 주로 현대산문 창작의 내용과 경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주로 산문의 개념·문체·예술·표현·미학풍격 등 각 방면에 걸쳐 수많은 타견을 제시하여 중국 현대산문의 개념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켜 놓았다. 한국 논문에서도 魯迅을 위시한 좌익 작가군과의 논쟁, 만명소품과의 관계, 문체에 대한 평가, 미학풍격 등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각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1930년대 周作人は 林語堂 등과 함께 ‘자아를 중심으로 하고’, ‘閑寂을 격조로 하는’ 소품문을 제창하여 소품문의 전성시기를 구가한다. 유머와 閑寂을 위주로 하는 소품문에 대하여 당시 좌익작가연맹의 영수였던 魯迅은 ‘모래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이리와 호랑이가 떼를 짓는 이 때에 누가 이토록 한가한 시간이 있어 琥珀장식이나 비취반지를 감상할 수 있겠는가.²⁵⁾’라고 비판하여 이른바 ‘小品文論爭’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의 閑寂 소품문은 혁명과 투쟁의 시대에 ‘서정성’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看雲集》·《永日集》·《風雨談》·《苦茶隨筆》 등에는 周作人の 많은 閑寂 소품문과 문학에 관한 의견들이 서술되어 있다. 당시 좌익 계열의 문예 이론가였던 錢杏村(1982)은 이러한 周作人の 소품문을 魯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25) 魯迅, 〈小品文的危機〉, 《魯迅全集, 4》·《南腔北調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575쪽 : 在風沙扑面, 狼虎成群的時候, 誰還有這許多閑工夫, 來賞玩琥珀扇墜, 翡翠戒指呢。

周作人의 소품문과 魯迅의 雜感文은 신문학 중에서 산문소품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취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전자가 전원시인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고난의 투사를 대표한다. 周作人 소품산문의 과정은 그가 어떻게 낡은 사회와 맞서 싸우는 전장에서 퇴각하여 ‘閉戶讀書’와 ‘草木蟲魚’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²⁶⁾

30년대 전개되었던 이러한 소품문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두 편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金美廷(1995)은 〈周作人·林語堂의 審美觀과 1930년대의 小品文운동〉에서 30년대 소품문론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논하면서 당시 周作人의 산문과 魯迅의 산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품문과 雜文의 확연한 분화가 시대상황 때문이었건(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 차이), 아니면 전통적인 산문분류의 엄격함과 세밀함이 작가들에게 끼친 심미의식의 한계였건 간에 중국의 현대산문이 풍격상·내용상 극단적인 양방향으로 나아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두 방향에 절충을 시도하여 소품문에는 중후한 사상성과 시대적 전투정신을, 잡문에는 ‘一刀見血’하는 날카로움 뿐만 아니라 유머와 풍자에 의한 휴식의 느낌을 강조했던 …(인용자 중략)… 어쨌든 잡문과 소품문이 각각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갖춰가는 과정은 현대산문의 개념과 범주가 구비되어가는 과정이면서 그 시대적 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⁷⁾

그리고 洪煥燐(2009)의 〈중국 현대산문의 기록성과 근대성 : 魯迅과 周作人の 글쓰기 실천을 중심으로〉²⁸⁾에서는 魯迅과 周作人の 후기산문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산문 속의 ‘기록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洪煥燐은 魯迅과 周作人이 후기에 들어서서 글의 기록성을 강조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음을 말한다. 특히 허구적 세계에서 경험적 세계로 글쓰기

26) 錢杏村, 〈現代六十家小品序〉, 《中國現代文論選》 第1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505쪽.

27) 金美廷, 〈周作人·林語堂의 審美觀과 1930년대의 小品文운동〉, 《中國文學》, 24(1995), 315~316쪽 참조.

28) 洪煥燐, 〈중국 현대산문의 기록성과 근대성 : 魯迅과 周作人の 글쓰기 실천을 중심으로〉,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30(2006).

의 중심을 옮긴 魯迅과 ‘抄錄體²⁹⁾’라는 새로운 산문문체를 만들어 낸 周作人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는 魯迅이 잡문을 본격적으로 창작한 배경과 그 글들의 성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 周作人과의 비교와 대조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주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여서 독창성이 돋보인다.

30년대 소품문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晚明小品’과 관련된 논쟁이다. 근대 신문학가들은 만명소품을 소개하며 그 시대 환경과 문학 현상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 탁월한 시각을 제시한 인물이 역시 周作人이다. 그는 순수 문학의 관점에서 만명소품을 ‘載道派 賦得文學’에 대한 반동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言志’와 ‘即興’의 두 가지에 두었다. 그리고 ‘閑寂’과 ‘趣味’를 내용으로 하고, ‘適性自娛’와 ‘平淡有味’의 풍격을 지닌 문장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周作人이 晚明 명사와 문인들의 소극적 은둔 경향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점은 뒤에 좌익계열 작가들에게 사회현실 문제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魯迅은 당시의 소품문 창작이 한가한 사람들에게 매만져지고 회롱 당하는 노리갯감이나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변함으로써 소품문의 발전이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魯迅은 〈小品文的危機〉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품문은 반드시 비수이며 투창이어야 하고, 독자와 함께 한 갈래 생존의 혈로를 싸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³⁰⁾”고 주장하여 소품문의 서로 다른 두 갈래 길을 분명히 구별해 놓았다. 李濟雨(1996)는 이러한 하나의 현상에도 서로 다른 첨예한 견해가 나왔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30년대 周作人·林語堂 등은 만명소품을 제창하면서 오직 그 중의 개인적 ‘風雅’나 ‘閒靜’만을 강조하고 의미심장한 ‘凌厲’·‘剛銳’한 면을

29) 抄錄體란 文抄筆記體·散文·書畫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서정이나 사상적 견해의 직접적 표명을 억제하고 대신 주로 다른 책이나 문헌들에 대한 단락 단위의 직접 인용과 짜집기를 통해서 글쓰기를 구성하는 문체 형식을 말한다.

30) 魯迅, 〈小品文的危機〉, 《魯迅全集, 4》·《南腔北調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576~577쪽: 生存的小品文, 必須是匕首, 是投槍, 能和讀者一同殺出一條生存的血路的東西。

소홀히 함으로써 좌익작가연맹 계통의 작가들로부터 “撕破了衣裳, 畫歪了臉孔³¹⁾”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확실히 문학작품은 늘 특정한 사회적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문학은 또한 그 사회적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개인적일 수는 없다. 魯迅·아영 등도 오직 작가의 정치·사회적 ‘인격’으로써 만명소품을 평가하여 그 적극성을 애써 부각시키려고 하였으나, 분명 만명소품 자체의 예술적 특징을 확대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문학 자체의 가치나 그 작품의 우열은 결코 작가의 정치의식의 높고 낮음이나 사회사상의 적극성 여부로 결정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인용자 중략)… 그들이 직면하였던 혼란스러운 시대의 위기와 한계는 그들로 하여금 오직 兩端 중의 一端만을 고집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自縊自縛하게 하여 그들의 견해와 연구는 당시로서는 이상적 실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어, 결국 훗날에 있어서의 진실보한 연구와 객관적인 평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²⁾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친 현대산문에 대한 이러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은 결국 魯迅과 周作人이라는 두 명의 걸출한 산문작가를 배출한 밑거름이 되었다. 周作人은 좌익작가들로부터 수많은 질타와 핍박을 받았고, 魯迅 또한 수많은 논적들에 의해 매도당하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좌익작가의 영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논점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끊임없이 각자의 산문세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드디어는 중국 현대산문의 독특한 경지를 이루어냈다.

2) 周作人의 소품관과 그 변천

작가의 문학관이나 사상 이외에 작가의 산문이 가지고 있는 문체상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어느 작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겠지만, 周作人의 상황은 좀 다르다. 정치적·사상적 오점을 안고 있는 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5·4시기 그가 가졌던 문학관과 그 이후 변모되어간 작가의 사상에 많은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8·90년대에 발표된 논문 중에는 작가연구 내지는 그의 사상이나 문학관에 대한

31) 인용자 注 : 옷을 다 찢어버리고, 얼굴을 비뚤게 그린다.

32) 李濟雨, 〈1930년대 '小品文論爭'을 통해서 본 晚明小品의 인식과 평가〉, 《中國研究》, 18(1996), 382쪽.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문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다소 소극적이었던 산문의 문체나 심미관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주목받는 분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혹자는 그간에 “문체란 문학연구에 있어서 부차적인 영역, 즉 수사상의 문제로, 장식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³³⁾”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그의 閑寂소품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21년 周作人은 《晨報副刊》에 〈美文〉을 발표하면서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 산문의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다. 시·소설·희곡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근대적 문학 장르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었던 산문의 영역에서, 周作人의 美文論은 중국 현대 산문에서 서정산문이 갖는 장르적 모색의 선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周作人은 ‘語絲社’를 결성하여 자유주의자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語絲》가 점차 간행회수를 늘리고, 왕성한 활동을 벌여감에 따라 내부의 모순과 불일치에 봉착한다. 결국 魯迅을 대표로 하는 主流派와 周作人·林語堂을 대표로 하는 非主流派는 각각 다른 방향에 비중을 두면서 문학 활동을 한다. 이후 ‘語絲社’는 魯迅을 대표로 하는 ‘語絲社’ 혁명파와 周作人·林語堂을 대표로 하는 ‘語絲社’ 타협파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반제·반봉건의 전통을 계속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양시켜 좌익문예운동의 골간을 이루었고, 後者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정치 상황을 비판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며 본격적으로 취미주의·자유주의로 나아간다.³⁴⁾

그러나 1927년 대혁명이 실패하자, 周作人은 “정치와 윤리라는 공적 담론을 빌어 개인을 억압했던 전통 위정자들의 논리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明清 혼란기의 착취와 참혹한 삶의 조건들은 20세기 중국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 표현’

33) 金美廷, 〈周作人の 산문세계 : 小品文의 문체구성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45(2005), 488~489쪽.

34) 許恩愛, 〈周作人の 1920年代 散文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3쪽 참조.

으로서의 문학이 그러한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회의하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국 역사와 현실의 ‘경험적 세계’에 대한 이성적 관찰이었다.³⁵⁾ 그는 〈閉戸讀書論〉을 발표하고, 이후 잡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소품문 창작의 길로 접어든다. 이에 대해 許恩愛(2006)는 周作人の 이 시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는 周作人の 1920년대 산문을 연구한 결과 그가 누구보다도 ‘인간’이라는 개체 존중을 위해 노력한 작가라고 결론지었다. 일반적으로, 시대가 바뀌면 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추구하는 바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야 하지만, 周作人は 그렇지 못했다. 끝까지 인간의 가치 긍정, 개인의 자유 인정이라는 ‘인도주의’의 관점을 견지했다. 1927년 대혁명의 실패로 문학은 정치적 이상의 도구로 강요받게 되는데, 이는 周作人이 견지하고 있던 문학관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周作人は 어느 작가보다도 깊은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1928년 〈閉戸讀書論〉에서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창작활동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실제로 이와 같이 창작활동을 한다. 周作人の 이러한 면은 내면의 굴절과 현실적으로 역량을 비축하지 못했던 20세기 중국의 자유주의적 지식인의 행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³⁶⁾

1930년대 소품문운동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1920년대 周作人の 산문세계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를 더한 작가의 탐색은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金美廷(1995)은 1930년대 이전의 그의 소품문의 특징을 ‘縱的 계승’과 ‘橫的 영향’이라고 요약하여 말한다. 여기서 ‘縱的 계승’이란 바로 전통산문의 계승을 의미한다. 周作人이 현대 산문의 전통을 明末 公安派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전통산문은 봉건적인 宗經·載道관념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작자 개인의 자아표현이 억압되나 현대산문은 진실한 자아의 표현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橫的 영향’이다. 당시 周作人에게 영국 수필의 전파는 ‘개인을 주체’로 하고 ‘자아를 표현’한다는 현대 산문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35) 주 28)의 논문, 215쪽.

36) 주 34)의 논문, 61쪽.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수필의 전래는 현대 중국문인들에게 전통적인 심미적 안목에 재차 눈뜰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리하여 新舊가 교차하고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던 시대에 새로운 구어체 산문의 모범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⁷⁾

그러나 이후 2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周作人は ‘서정’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자아의 표현만을 내세우지 않고, 역사의 순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筆記’라는 전통 문인들이 사용했던 글쓰기 방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³⁸⁾

30년대 周作人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筆記’이다. “여기서 ‘筆記’란 전통 지식인들이 정통의 글쓰기 이외에 행했던 다양한 잡기성 저술들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雜學·雜考·雜說·雜品·雜纂·雜編³⁹⁾ 등이 있는데, 周作人は 이 중 雜說에 해당하는 의론과 서술을 겸비한 글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결국 새로운 독서 필기 형식의 소품문체인 ‘抄錄體’ 산문을 창안하기에 이른다.⁴⁰⁾” 이러한 새로운 산문체의 창안과 관련하여 洪燦燦(2009)은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말하고 있다.

周作人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삶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진실은 공허한 자기주장이나 감성적인 환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자기주장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경험의 세계를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周作人이 지난 300여 년간 학인들이 남긴 사상 건문록을 다시 체계적으로 읽고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자기기만의 허망함에 빠지는 것을 시종 경계하면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벗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으로부터 문학적 진실을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었던 것이다.⁴¹⁾

37) 주 27)의 논문, 324쪽 참조.

38) 주 28)의 논문, 215쪽 참조.

39) 雜學은 입론을 위주로 하고, 雜考는 변증을 주로 하며, 雜說은 의론과 서술을 겸하고, 雜品은 사물의 이치를 두루 따지고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진술한 것이다. 雜纂은 옛 글들을 모아 어떤 주제에 따라 편찬한 것이고, 雜編은 여러 가지 글들을 체제에 구애 받지 않고 한데 모은 것을 말한다.

40) 주 28)의 논문, 216~217쪽.

41) 주 28)의 논문, 219쪽.

단순한 서정의 단계를 넘어 사상적 글쓰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던 周作人の ‘抄錄體’는 이후 학자들의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문체’로 여겨지면서 1990년대를 전후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초록체에 대한 洪俊熒(2005)의 또 다른 논문인 〈1930년대 周作人の 文體 選擇과 그 動因〉에서는 抄錄體에 대한 매우 구체적 평가가 이어진다.

周作人の ‘閉戶讀書’나 ‘抄錄’은 혹자가 이야기하듯 그렇게 단순히 현실에 대한 도피나 자기 주관없이 베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이란 매개를 통한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이성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으며, 동시에 역사와 현실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세계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담론 방식을 찾으려는 지식인의 치열한 자기 도전이었다.⁴²⁾

이 외에도 周作人の 소품문에 대한 몇몇 논문들이 있으나 논의로 한다. 다만 周作人の 소품문에 대한 한국 작가들의 시각 중에서, 金美廷(1995)은 ‘周作人和 林語堂의 閑寂소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소품문을 근대적인 자유의식과 개인의식이 가장 잘 표출될 수 있는 문학형식으로 끌어냄으로서 현대산문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아가 사회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고독한 자아’에 불과하다면, 그들의 개인주의와 개성주의는 필연적으로 한적한 정취 속에서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 향락주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공히 그럴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⁴³⁾

그러나 30년대 소품문에 대한 논쟁을 통해 魯迅과 周作人을 위시한 파벌간의 치열한 논쟁을 치르면서 한 문학 장르를 고민한 흔적을 볼

42) 洪俊熒, 〈1930년대 周作人の 文體 選擇과 그 動因〉, 《韓國中文學會》, 18(2005), 92쪽.

43) 주 27)의 논문, 335쪽.

때, 이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단절’이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좌익작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周作人과 작가들의 시대적 특수상황이었을 뿐, 그들의 문학이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문학의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타당한 평가이겠지만, 문학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과연 누가 더 문학다운 문학을 한 이들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의 문학이 ‘생활향락주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각은 자칫 어느 一端의 관점이 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을 듯하다.

이후 40년대는 周作人이 친일부역을 행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시기의 산문들에 대한 국내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그의 사상에 오점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학사에 있어서도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내 논문들의 연구 범위도 30년대까지의 글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周作人이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쓴 산문에 대해 일부 중국학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살펴봐도 이와 비견할 만한 저서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⁴⁴⁾고 호평을 하기도 한다. 독서소품인 《藥堂語錄》이 그 대표적인 저서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식 상에서 그는 여전히 대가의 풍모를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홀시되고 있는 周作人の 40년대 산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연구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4. 고뇌하는 지식인

周作人の 친일부역은 20세기 중국 지식인에게서 나타난 시대의 굴곡 중 가장 복잡 미묘한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그가 중국 신문학운동에서, 그리고 중국문학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컸던 인물이기도 하지

44) 孫郁 著, 金永文·李時活 譯, 《魯迅與周作人》(서울: 소명출판, 2005), p.363.

만, 그의 친일부역의 진실을 놓고 아직까지도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되던 그의 변절은 중국지식인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곤혹감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철저하게 매도당했고 복권이 되고 난 이후에도 줄곧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 나온 글들을 살펴보면 周作人의 친일부역과 관련된 논문은 2편이 있다. 金美廷의 〈중일전쟁시기 周作人의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2001)과 〈중일전쟁시기 북경이란 문화공간 : 周作人의 경우를 중심으로〉(2009)이다. 이 논문들에서는 周作人이 중일전쟁이후 친일부역을 마치고 수감될 때까지의 종적을 따라가며, 어떤 고민과 진실이 있었는지를 추적하였다. 金美廷(2001)은 한국 또한 일제 강점기를 거친 상황과 중국의 상황을 대비하여 周作人의 결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많은 지식인들에게 지사의 삶을 살았기를 기대한다. 지사란 節操를 생명으로 여기고, 절조란 한번 꺾이면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을 제외하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이들 가운데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거나 囹圄의 고통을 감수했던 지극히 소수의 인물만이 남게 됨을 이해해야 한다. 한 개인이 36년이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전 생애에 해당할 수 있는 시간을 완벽하게 자신의 시대로부터 자유로운 순결한 지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용자 중략)… 물론 중국의 周作人의 친일 행적을 한국의 다른 친일적 지식인과 단순비교하면서 동등한 배려를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8년간의 전쟁기간 중 5년 부역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보여주듯이 그가 고심 끝에 내렸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과연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충분히 고민하였는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⁴⁵⁾

또한 전쟁 발발 후 많은 지식인들이 남행을 결정하며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에게도 북경을 떠날 것을 권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끝내 북경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점은 분명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할 부분이다.

45)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周作人의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中國現代文學》, 20(2001), 486쪽.

이는 周作人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결정의 이면에는 어떤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후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스스로 낙오하여 목숨을 구걸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소위 공산당 지하 조직에서 괴뢰 정부에 周作人을 파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부득이한 상황 하에서 민족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치욕적인 생활을 자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⁶⁾ 실제로 周作人을 위해 변호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그의 ‘소극적 저항’의 예들을 말한다. 즉 그가 교육과 문화보호를 위해, 애국 지하활동을 한 인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북경대학의 재산과 서적을 지키고 오히려 증가시켰음을 호적이 증언한 것, 둘째 敎育督辦으로 있던 기간 동안 국립북경도서관 내 소장 자료의 손색이 없고, 기타 문화 기관도 상황이 비슷한 점, 셋째 일본 군부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학교나 교수들의 완충작용을 한 것, 넷째 지하공작을 벌이다 체포된 몇몇 인사들의 보석을 알선하고, 누설된 지하공작을 알려줘 피신하게 한 것, 다섯째 관료로써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엮은 문집에도 친일을 선양하는 글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⁴⁷⁾

그러나 1941년 이후 그가 보인 친일활동의 수위는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노골적인 것이었기에, 아직까지 周作人에 대한 논란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각자의 논리에 맞는 해석들로 채워져 있다. 중국에서 발간된 孫郁(2005)의 《魯迅與周作人》에서는 周作人의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金美廷은 이 시기의 周作人에 대해 이와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周作人이 친일관료가 된 사실에 대하여, 周作人이 현실적으로 지사의 삶을 포기—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과는 다르다—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했던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사의 삶이 포기된 다음에 그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학자로서의 삶이었다. 〈중국의 사상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글은 그가 학자라는 말 속에

46) 주 44)의 책, 367~368쪽.

47) 주 45)의 논문, 498~499쪽 참조.

수렴된다. 지사는 節操를 생명으로 삼지만 학자는 학설로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의 학설의 진실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의 학설이 틀렸다면 그것은 학자로서도 실패했음을 뜻하고 아울러 그의 삶은 총체적으로 과멸했음을 뜻한다. …(인용자 중략)…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학자라는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친일관료라는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지사로 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학설은 친일관료—학자—민족주의자의 진폭을 오간다. 즉 학자로서의 周作人은 지사라는 몽상 속에서 친일관료라는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학자로서의 명철함과 엄격함, 자신과 대상에 대한 반성적 거리는 훼손된다.⁴⁸⁾

후인들은 周作人이 걸어왔던 특수한 시대적 여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이제는 역사와 이념을 넘어선 관조의 자세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문학 들여다보기는 분명 한국의 친일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에도 부응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주작인과 한국 친일작가의 비교연구’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사료된다.

5. 맺음말

周作人에 대한 한국 내 연구를 종합 고찰하면서 필자는 한국 내 자료들이 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거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그 모든 내용을 다 실기란 역부족이었음을 느낀다. 따라서 전체 자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세 가지 주제—1. 周作人の 문학과, 2. 小品文, 3. 고뇌하는 지식인—에 접근하였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전체 글들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엽적인 글들을 지면상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역사가 바뀌면 그 작가와 문학 또한 재평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목도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다수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격변의 시대를 걸어온 문학일수록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周作人은 그러한 시대와 문

48) 주 45)의 논문, 510~511쪽.

학이 가지는 상관관계로부터 소외되었던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때로는 계몽주의자로, 때로는 개인주의자로, 때로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를 모색했던 선각자로서 그는 치열하게 한 시대를 고민했다. 비록 친일부역으로 크나큰 오점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8·90년대 다시 일어난 ‘周作人熱風’이 시대를 뛰어넘어 독자와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와 사상의 명에 속에 갇히고 말았던 그의 문학의 화려한 부활이 아니었을까?

<參考文獻>

1. 國內學位論文

- 申明圭, 〈周作人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85.
李政勳, 〈五·四時期 周作人 文學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金美廷, 〈周作人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李知岡, 〈周作人の 문학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학석사논문, 2002.
許恩愛, 〈周作人の 1920年代 散文研究〉,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6.
高韻璇, 〈周作人 散文에 나타난 문학 담론 연구 : 5·4 新文學 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2. 國內學術紙 論文

- 申明圭, 〈周作人の 휴머니즘〉, 《中國語文學》, 12(1986)
申洪哲, 〈5·4 초기 周作人の 현실인식과 문예사상〉, 《中語中文學》, 12(1990)
金美廷, 〈周作人の 전통문학관 :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 22(1994)
趙璟姬, 〈周作人の 文藝觀研究(1918~1928)〉, 《中國語文論叢》, 7(1994)
金美廷, 〈周作人·林語堂의 審美觀과 1930년대의 小品文운동〉, 《中國文學》, 24(1995)
李濟雨, 〈1930년대 ‘小品文論爭’을 통해서 본 晚明小品의 인식과 평가〉, 《中國研究》, 18(1996)
金美廷, 〈중국현대산문을 통해 본 중국현대 정신사의 한 측면 : 周作人

- 에서 賈平凹로), 《中國文學》, 30(1998)
- 金美廷, 〈현대를 향하여 : 周作人の 五四觀〉, 《中國現代文學》, 16(1999)
-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中國現代文學》, 20(2001)
- 崔成卿, 〈周作人の ‘人的文學’에 관한 考察〉, 《中國語文論叢》, 24(2003)
- 洪煥燮, 〈1930년대 周作人の 文體 選擇과 그 動因〉, 《韓國中文學》, 30(2005)
- 金美廷, 〈周作人の 산문세계 : 소품문의 문체구성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45(2005)
- 小川利康 著, 高韻璇 譯, 〈5·4시기 周作人の 문학관: W. 블레이크, L. 톨스토이의 수용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19(2006)
- 洪煥燮, 〈중국 현대산문의 기록성과 근대성 : 魯迅과 周作人の 글쓰기 실천을 중심으로〉,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39(2006)
- 高韻璇, 〈성담론의 수용과 周作人の 審美觀〉, 《中國學論叢》, 22(2007)
- 高韻璇, 〈新文學運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 1918~1927년 周作人の 산문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23(2008)
- 白永吉, 〈5·4시기 周作人の 基督教 批評談論〉, 《中國語文論叢》, 42(2009)
- 洪煥燮, 〈산문 전통과 1930년대 학자산문 : 周作人·俞平伯·廢名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48(2009)
-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北京이란 문화공간 : 周作人の 경우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54(2009)

3. 國內外 單行本

- 周作人 著, 金喆洙 譯, 《中國新文學講話》, 서울: 을유문화사, 1970.
- 錢杏村, 〈現代六十家小品序〉, 《中國現代文論選》 第1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 魯迅, 〈小品文的危機〉, 《魯迅全集, 4》·《南腔北調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 孫郁 著, 金永文·李時活 譯, 《魯迅과 저우쥬어런》, 서울: 소명출판, 2005.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중국현대작가의 이해》, 서울: 동녘, 2006.

<中文提要>

本稿参考至2001年韩国国内对于周作人的研究作品, 探究了韩国学者对周作人都进行了哪方面的研究。为此, 以在韩国发行的各种学位论文、学术纸、论文和单行本为分析对象进行了研究, 探索了韩国学者对周作人哪一方面的关注、且跟中国学者有什么不同的新观点。

本稿探索了三个主题一周作人的文学观、小品文、探究人物的文章, 分析了其研究倾向。

第一, 周作人的文学观。本稿探究了提出5·4时期新文学运动理论方向的周作人的人文主义文学观及传统文学观。

第二, 将周作人代表的创作领域小品文按照时代的变化探究, 而且吸纳了韩国作家的意见。

第三, 周作人人物分析。了解担着‘汉奸’的恶名的周作人不得不做出亲日行为的时代背景, 及韩国作家对此的见解。

周作人既是启蒙主义者、又是个人主义者、也是继承传统并进行创新的学者。他的一生风风雨雨, 兢兢业业, 积极奋进。尽管因‘汉奸’的恶名留下了污点, 但在八九十年代掀起的周作人热潮, 使周作人在现代读者的心中复活。

本稿希望通过在韩国国内进行的对周作人的研究, 有助于对周作人的正确理解, 成为以后继续研究的参考资料。

關鍵詞 : 周作人 人文主义 小品文 散文 亲日

투 고 일 : 2012.2.26

심 사 일 : 2012.3.10~4.15

게재확정일 : 2012.4.20